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남서 팡파르

24~27일 17개 시·도 2만여명 참가
41개 종목 20개 시·군 분산 개최
전남 선수단 전 종목 1655명 출전
최고령·최연소·가족 선수 ‘눈길’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축전은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종합대회로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단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골프·검도·핸드볼·수중핀수영·배드민턴·육상 등 41개 종목의 경기가 목포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또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151명도 한·일 생활체육 국제교류 차원에서 방한,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등 8개 종목에 참가해 양국간 우호 증진에 나선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4~27일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으뜸전남 자원봉사! 함께날자 감동체전!’라는 주제로 명창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참석자들이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도와 전라남도체육회는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경기 운영, 시설 정비, 안전 관리, 의료 지원, 교통 및 숙박 대책, 자원봉사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쳐 준비를 마쳤다.

또 각 시·군체육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맞춤형 경기 운영과 손님맞이 계획도 철저히 하게 수립했다.

전라남도 선수단도 검도, 게이트볼, 골프, 농구, 당구 등 전 종목(41개 종목)에 걸쳐 총 1655명(선수 1329명·임원 326명)이 참가해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를 선도하며,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고령 선수로 소프트테니스 종목에 참가하는 이계수(90) 옹과 최연소 선

수로 볼러종목에 참가하는 주은우(8) 군이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참가하는 사례도 눈길을 끈다. 대회 5번째 동반 도전에 나서는 김성봉(49년생)·오이순(56년생)씨 부부는 포항단지지에서 연속 메달을 노린다.

그라운드골프에 참가하는 이점순

(40년생)·이사순(49년생) 자매는 70대 이상 여성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자매애를 과시할 태세다.

축구 유소년부에는 정진철(82년생) 보성FC 감독과 아들 정시운(14년생) 군이 감독과 선수로 참가한다.

순천마스터즈 소속 이의재(95년생) 씨와 딸 윤시아(18년생) 양 모녀도 각각 우슈 태극권 종목에 나서 가족 간의 건강한 체육활동 문화를 보여준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에서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대축전이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도민과 국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심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전남에서 함께 땀 흘리고 화합하는 시간이 전남 체육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도민 건강 증진, 지역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체육중 송채연, 전국종별체조선수권 3관왕 달성

개인종합 45.633 획득 1위
마루·이단평행봉도 금메달
도마·평균대는 동메달 수확
광주체중 女단체종합 준우승



주, 홍라희(이상 1년), 박유빈(2년)과 함께 출전한 대회 여자15세이하부 단체종합에서는 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 등 4개 종목 총

점 161.833점을 얻어 서울체중(169.434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송채연은 “후배들과 동계훈련하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이를 잘 극복했고 팀 전체를 믿어주고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연구해 계획적으로 훈련을 가르쳐 준 홍윤식 감독님과 선종영 지도자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됐다”며 “직접 경기장까지 직접 와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응원을 해주신 교장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윤식 광주체중 체조감독은 “주로 1학년생들로 구성돼 선수층이 약하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계훈련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선수들의 기초체력 및 기술훈련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집중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5월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이어가기 위해서 멘탈 훈련인 심리적 측면과 자세교정을 보강해 나가는 등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 근대5종 간판’ 서창완, 시즌 첫 월드컵 출전

22~2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승마 대신 장애물 시험대 올라

‘전남 근대5종 간판’ 서창완(국군체육부대)이 2025시즌 첫 국제대회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22일 대한근대5종연맹에 따르면 서창완, 이민서(인천시체육회), 손정욱(한국체대), 이종현(대전시청)이 22~2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2025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2차 대회 남자부에 출전한다.

여자부에서는 성승민(한국체대), 신수민(경남근대5종연맹), 박가연(충남도청), 김유리(경기도청)가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에 나선다.

한국 근대5종 대표팀이 시니어 부문에서 장애물 종목이 도입된 세계무대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첫 출전 대회다.

2028 LA올림픽부터 승마 종목이 제외되고 장애물 경기가 도입되면서 UIPM은 2023년 부터 시니어 이하 청소년세계선수권(U17, U19 등) 대회에 장애물 종목을 우선 도입했다.

시니어 부문은 2024 파리올림픽까지 승마를 유지했으나, 올해부터 시니어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장애물 경기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2차 월



서창완이 지난해 열린 2024 파리올림픽에서 레이저런을 하고 있다.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드컵을 통해 처음으로 장애물이 포함된 세계 무대에 나선다.

장애물 경기는 약 70~80m의 코스에서 8개의 장애물을 최단시간 내에 통과해야 하는 고강도 체력 종목으로, 선수들의 속도도와 민첩성, 순발력, 순간적인 판단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해 개최된 2024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장애물 종목에 처음 출전해 우수한 성적과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 경험과 준비된 기량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계획이다.

특히 2024 파리올림픽에서 아시아 여

자 선수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성승민과 남자부 7위를 기록하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알린 서창완의 활약이 기대된다.

대한근대5종연맹은 두 선수가 파리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종목 체계 속에서도 대표팀에 안정감과 자신감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근대5종연맹 관계자는 “이번 월드컵은 새로운 종목 체제에서 대표팀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박승우, 연맹회장기 4관왕 쾌거

공기총 R4·R5 개인·단체전 석권
광주시청 금 4·은 1·동 2개 수확

‘대한민국 장애인사격 간판스타’ 박승우(광주광역시청·사진)가 2025년 연맹회장기 전국장애인사격대회서 4관왕을

차지했다.

박승우는 지난 15~18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공기총 입사(R4) 개인·단체전과 공기총 복사(R5) 개인·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승우는 공기총 입사(R4) 개인전에서 254.4점으로 253.6점의 서훈태(경기



도장애인체육회)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승우의 254.4점은 지난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이명호(청주시청) 선수가 기록한 대회신기록(254.1점)을 넘어선 기록으로 오는 5월 28일 개막하는 2025 창원 장애인국제사격월드컵대회 전망을 밝게 했다.

박승우는 공기총 복사(R5) 개인전에서는 255.1점으로 전영준(대전·253.8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 공기총 입사 단체전(R4)에서는 1897.7점으로 1위를, 공기총 복사 단체전(R5)에서도 1906.0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4관왕을 달성했다.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은 박승우의 4관왕을 포함 금 4개와 은 1개(화약총 복사 단체전(R9)·1836.5점), 동 2개(공기

총 입사(R4) 개인전 박동안·화약총 복사 개인전(R9) 임주현)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박승우는 “대회 마지막 날 컨디션 난조로 화약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것 역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컨디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다음 달에 개최되는 창원 월드컵대회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